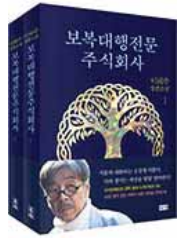


인간 존재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불합리·부조리·갑질 세상 통렬히 질타



**보복대행전문  
주식회사**

이외수 지음

불합리와 부조리, 갑질이 판치는 세상을 통렬히 질타하는 소설이 출간됐다.

올해로 문학인생 43년을 맞은 작가 이외수의 여덟 번째 장편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는 12년 만에 발표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국내 최초 트위터 팔로워 100만 명 돌파'를 기록할 만큼 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해왔다. 현재 강원도 화천 '감성마을'에 집거하며 소설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소설에는 '기업 신뢰도와 정부 신뢰도는 바닥인 불신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작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책은 지난 2월 20일부터 카카오페이지 채널에서 연재를 시작한 웹 소설 연재 종료와 동시에 종이책으로 발간됐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인간의 구원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수반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12년의 공백 끝에 발표한 작품에서 작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통쾌한 상상력을 매개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흥미로운 제목만큼이나 소설적 장치와 특유의 작가적 입담이 녹아 있어 읽는 이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작품은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서른 살 청년이 식물들의 제보와 도움을 빌려 사회악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인공의 곁에는 식물들과의 염사(念寫)를 도와주는 백랑금, 눈빛과 마음으로 식물의 상태를 감지하는 꽃가게 주인 한세은, 예리한 분석력을 소유한 괴짜 검사 박태빈이 등장한다. 또한 정의를 위해 홀로 투쟁하는 기자 노정진이 식물들과 함께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를 꾸려 나간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 4대강 사업의 요주의 인물들을 찾아 응징하는 과정이 소설 전체를 관통한다.

그 가운데 동물 학대, 성폭력, 언론 왜곡, 뇌물 수수 등을 자행한 인물들을 추적, 식물들과 공조해 그들을 개과천선토록 하는 내용이 줄거리를 이룬다.

작가는 그동안 인간의 본성마저 상실한 세대를 보여주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왔다. 이 소설 역시 작가의 동일한 주제 의식이 투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남·각 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돈에 끌려가지 말고 돈을 끌어 당겨라”



**다시 시작하는  
돈 공부**

이즈미 아키코 지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끌려 다니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테크의 기본을 다지는 경우라면 돈을 절약하거나 불릴 수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모으고 있을 것이다. 혹은 법적, 습관, 구조 만들기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테크의 성공은 '지식'이나 '기술'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생활 경제 저널리스트이자 파이낸셜 플래너인 이즈미 아키코가 펴낸 '다시 시작하는 돈 공부'는 지금까지 돈 공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수많은 가계를 상담, 컨

설파하며 가계관리를 철저히 해도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 저자는 돈을 잘 다루는 '부자의 마인드'를 갖지 못해서라고 단언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걸맞은 성공이나 수입에 무의식적으로 제한을 둔다. 또한 '수입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한다'와 같은 생각에서 묶여 있다. 책은 저자가 미국에서 수강했던 머니 클리닉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컨설팅해온 경험을 접목한 결과물이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독자가 가진 돈에 대한 낯은 생각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구체적 방법을 소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상적인 머니플래너 네 가지 자산을 활용해 돈을 늘리는 방법이 담겨 있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돈에 끌려가지 말고 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라'.

〈다온북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과 삶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법

가치를 알아보는 눈, 안목에 대하여

필리프 코스타마냐 지음



남과 다른 수준 높은 안목은 어떻게 형성될까? 그리고 안목이란 무엇일까? 보이는 것 너머 특별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안목'이라 한다. 미술품 감상자에게는 나름의 안목이 있다. 이들은 연구의 관점에서 작품을 발견하고 육안으로 원작자를 규명하기도 한다. 프랑스어로 미술품 감정은 '눈oeils'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만큼 관찰에 주력하는 직업이라는 뜻이다(조항사는 '코nez'라는 단어로 쓰는데, 향을 찾아내고 향을 고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작 논란에서 보듯 작품 감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름다움과 본질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춘 이의 앞에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술관에 가보면 대체로 두 부류의 관객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무심한 얼굴로 벽에 걸린 작품을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미로를 찾는 모습 같다. 이와 달리 작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몇 시간이고 작품 앞에서 있기도 한다.

같은 작품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들이 본 것은 동일한 작품이었을까?

“안목은 보는 것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

이는 세계적인 미술품 감정사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 브르치노, 1540~1545년 브장송 미술관.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꼽히는 아자시오 미술관 관장이기도 한 필리프 코스타마냐의 말이다.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의미다. 그의 책 '가치를 알아보는 눈, 안목에 대하여'는 미술품 감상 사로서의 자전적 에세이다.

같은 조건에 있더라도 안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보지 못한 면을 본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 책은 대체로 미술을 보는 안목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

학과 음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안목 등 우리 삶의 전반을 보는 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수준 높은 안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에 대한 답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그에게는 매주 목요일을 문화 탐방의 날로 정할 정도로 미(美)에 관심이 깊었던 외조부모와 살던 유년시절이 있었다. 파리의 미술관들을 놀이터 삼아 구석구석 누비던 청소년 시절도 있었다. 예를 뒤 루브르와 소르본 대학, 롱기 장학재단에서 미셀 라클로드 교수(루브르 박물관 명예관장)와 마나 그레고리 교수(카리바조 연구의 대가) 등 미술사학계의 대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기도 했다.

사실 미술품 감정은 은밀하면서도 흥미로운 일을 하는 직업이다. 예술과 역사를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감수성, 현장에서 쌓은 감식안은 기본이다. 이를 토대로 작품의 원작자를 밝혀내고 어둠속에 묻혀 있던 '진주'(걸작)를 발견한다. 물론 특유의 날카로운 눈으로 위작을 가려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작은 단서로 퍼즐을 맞춰 끝내 사건을 해결하는 미술계의 탐정” 같은 사람이다.

저자는 책에서 '위대한 발견'을 이뤄낸 과정을 소개한다. 우연히 들른 니스 미술관에서 햇빛 아래 반짝이는 브르치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나, 브르치노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루트 연주자의 초상'의 원저자(폰도르프)를 밝혀낸 것이 그 예다.

그뿐 아니다. 프랑스 미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위작의 달인들에 대한 사례도 들려준다. 나아가 프랑스 미술시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드루오 경매소 뒷이야기, 베렌스·롱기·제리 등 역사상 위대한 감정사들의 활약상도 소개한다.

책을 읽다보면 예술을 넘어 삶을 보는 안목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되 철저한 자기관리와 도덕적 인성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는 것을.

〈아날로그·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과 인간의 분절 끊고 살아가는 존재의 감각



**복양향로**

오세영 지음

영광 출신으로 한결같은 서정시의 길을 걸어온 오세영 시인이 열아홉 번째 시집 '복양향로'를 펴냈다. 지난 1965~1968년 '현대문학'신인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이후 시인은 반세기 가까이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모두 네 개의 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60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작품집에는

그동안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자연과 사물을 구분하던 '나'라는 피아의 벽을 허문다. 벽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오랜 입원 끝에 병원을 나선 청년'과 '이제 막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다르지 않다.

시인은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분절을 끊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감각을 주목한다. 이밖에 삶의 회회와 고독에 대해서도 특유의 목소리를 낸다. 자신을 새로, 시를 구름으로 비유한 시인은 "구름 한 점 몰어 오기 위해" 매일 하늘을 날아 올랐지만, 구름도 곧 "허공에 뜬 한 줄기 연기"에 불과했다고 씁쓸히 읊조린다.

〈민음사·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몸에는 자기 일에 적합한 생체시계 있다



**WHEN  
시간의 심리학**

마이클 부레우스 지음

2013년 온라인 조사업체 톨루나 오픈 버스가 3000명이 넘는 미국 성인에게 '무슨 요일에 가장 잠들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의 39%가 일요일이라고 답했다. 토요일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습관 때문이다. 이는 24시간 주기 리듬이 깨져서 이른바 '사회적 시차'가 발생한 데

서 연유한다.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이자 임상심리의사인 마이클 부레우스 박사는 우리 몸에 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펴낸 'WHEN 시간의 심리학'은 내면의 생체 시계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속에 내재돼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생체시계가 동일한 시간을 가리키며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면 충동(sleep drive)'이다.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깊은 잠이 필요한지에 따라 시간 유형이 달라진다. 〈세종서적·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 성 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 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http://www.ipalg.co.kr)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못 임하듯 시공함으로써 건물물 합치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